소리 마녀

* 글 : 신은영
* 그림 : 유재엽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정가 : 12,000원
* 분량 : 111쪽
* 대상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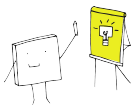
· 책 소개

《소리 마녀》는 불면증을 앓고 있는 엄마를 둔 리나의 이야기예요. 리나의 엄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밤에 잠이 잘 오게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잠을 못 자다 보니, 항상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요. 그런 엄마를 날마다 지켜봐야 하는 리나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리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루는 '소리 마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소리 마녀가 엄마의 꿈속 깊은 곳으로 가면 리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리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요? 그건 바로 엄마가 잠을 푹 자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의 꿈속 깊을 곳으로 갈 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리나는 세상에서 무서운 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 리나가 엄마를 위해 소리 마녀와 함께 엄마의 꿈속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 주요 독후활동

소리 마녀

책 속으로	· 엄마는 잠들고 싶어 · 기억 속 소리 ·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 이상한 할머니
책 속으로	· 말도 안 돼! · 꿈속으로 · 징글벨 · 자장가
창의융합	· 상상하여 그리기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소리 마녀》책 표지와 제목을 통해 책의 내용을 상상해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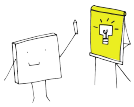
※ 2~3.《소리 마녀》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리나의 소원은 엄마가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엄마가 날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소리 마녀가 엄마의 꿈속 깊은 곳으로 가면
리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엄청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리나는 무섭다는 말에 겁이 덜컥 났어요.
리나는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2. 나도 리나처럼 엄마의 꿈속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가보고 싶나요?

3. 소리 마녀는 리나와 함께할 모험이 아주 무서울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내가 만약 리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엄마는 잠들고 싶어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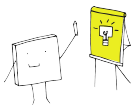
(가) “리나야, 넌 여덟 시에 뭐해?”
“여덟 시면……엄마랑 운동하고 반신욕하고, 아로마 향초를 피울 시간이야.”
무심한 얼굴로 리나가 대답하자 다정이가 놀랍다는 듯 눈매를 늘렸다.
“우아, 근사하다. 너희 집엔 은은한 향기가 가득하겠구나?”
“응. 그렇긴 한데……. 전혀 근사하지 않아.”
말끝을 살짝 흐리며 리나가 입꼬리를 씰룩였다.
순간 아로마 향초 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뒤에 이어지는 엄마의 낮은 한숨도!
‘매일 그렇게 해도 엄마는 잠들지 못하는걸…….’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몸을 뒤척이는 엄마가 떠오르자, 리나 입매가 푹 가라앉았다.
‘어떻게 하면 엄마가 쉽게 잠들 수 있을까?’

(나) “아 참! 엄마! 우리 반 지훈이 알지?”
“잠꾸러기 지훈이?”
“응. 오늘도 수업 시간에 쿨쿨 잠들었더라고. 신기하게도 밤에 일찍 자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지 뭐야. 근데 어릴 적에 엄마도 지훈이처럼 잠꾸러기였다면서, 지금은 왜 잠이 안 오는 걸까?”
지훈이의 말간 얼굴을 떠올리며 리나가 물었다.
“그땐 외할머니가 자장가를 불러 주기만 하면 금방 잠들긴 했지. 자장가가 수면제인 것처럼 말이야.”

1. (가)에서는 저녁 8시의 리나네 집 풍경을 알 수 있는데요. 근사하다는 다정이의 말에도 리나의 입매가 푹 가라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지금은 잠들지 못하는 엄마도 어릴 적엔 잠꾸러기였는데요. 어릴 적 엄마를 잘 잘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3. 쉽게 잠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기억 속 소리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며칠 전에 선생님이 어릴 적에 즐겨 듣던 노래를 텔레비전에서 들었거든. 근데 참 신기한 기분이 들더구나. 순간 그 시간과 공간으로 이동한 것만 같은 기분 말이야. 그저 소리만 들었는데도 그 시절 기억들이 풍성하게 떠오르더라고. 혹시 너희 중에도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 있어?“

(나) 주아가 손을 번쩍 들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옆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집 앞에 몰려왔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쿵쿵 울리고, 손발이 막 떨리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줬는데도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후 시간이 꽤 지나서 다 잊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ㅇ머마랑 걸어가다가 소방차들을 봤는데요. 사이렌 소리가 커지니까 그때 생각이 번쩍 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 “혹시 어릴 때 들었던 자장가를 다시 들으면 잠이 올까요?”

웬 뜬금없는 소리냐는 듯이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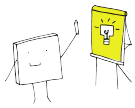
“자장가? 아마 그렇지 않을까? 선생님이 어릴 적에도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거든.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마음이 절로 차분해지고, 몸도 나른해지더라고. 마치 그 옛날 엄마 곁에서 잠들기 직전의 기분처럼 말이야. 리나도 어릴 적 자장가를 다시 듣고 싶은 모양이구나?”

안심이라는 듯 리나가 생긋 웃었다.

1. 글 (가)의 선생님처럼 소리만 들어도 선명해지는 기억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을 써 보세요.

2. 소리와 기억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무서운 순간에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들으면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떠오르기 마련인데요. 좋은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 자장가에 대한 선생님의 말에 리나는 안심하며 생긋 웃습니다. 리나의 마음이 밝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저 소리가 안 들린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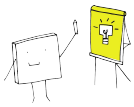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난 저 소리가 참 좋아!”
맑은 웃음을 내며 리나가 말했다.
“무슨 소리?”
다정이가 묻자, 수향이도 덩달아 눈매를 늘렸다.
“㉠사르락사르락! 나뭇가지 끝이 박수 치는 소리, 못들었어?”
(나) 그 순간,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오목하게 구부린 손바닥을 귓바퀴에 갖다 대며 리나가 말했다.
“너 이번에도 나뭇가지 소리 말하는 거야?”
“아니! 이번엔 피리 소리 같은데? 잘 들어 봐! 아주 구슬프면서 아름다운 소리잖아.”
“대체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다) 한숨을 내쉬고 리나가 막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커다란 나무에 반쯤 가린 까만 모자가 눈에 쏙 들어왔다. 크고 뾰족한 까만 모자를 쓴 누군가가 벤치에 앉아 피리를 부는 게 틀림없었다. 쿵쾅쿵쾅, 큰 소리로 울려 대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리나가 천천히 다가갔다. 피리 소리에 맞춰 까만 모자가 살짝 살짝 흔들리는 게 보이자, 리나 마음에 햇살이 한 움큼 내려앉는 것 같았다.
‘역시 내가 맞았어! 저렇게 큰 소리로 피리를 부는데 안 들린다고? 나만 빼고 다들 귀가 이상한 거였어.’

1. (가)에서 리나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사르락사르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르락사르락을 넣어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2. 리나는 들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은 듣지 못한 소리는 무엇인가요?

3. 어디선가 들리는 피리 소리를 따라간 리나는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음에 햇살이 내려앉는 것 같은 뿌듯한 기분에 들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이상한 할머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대체 누가 할머니라는 거야?”
신경질적인 말투가 공원을 우르릉 흔들었다. 놀란 리나 눈이 커다래졌다.
“저는 그냥 머리가 하얀색이라 할머니인 줄 알고.”
“머리가 하얗다고 무조건 할머니라는 법이라도 있어?”
마녀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으르렁대자 리나 입술이 조그맣게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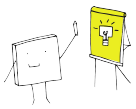
(나) “죄송해요. 마녀님이라니 너무 웃겨서요. 크크크. 근데 그 피리 소리 말이에요. 혹시 다른 사람들 귀에는 안 들리는 걸까요?”
“간절히 원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야. 너처럼!”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말투에 리나 입이 살짝 벌어졌다.
“어,어떻게 아셨어요? 간절히 원하는 소리가 있다는 걸요.”
“어떻게 알긴! 소리 마녀니까 알지!”

(다) “엄마가 어릴 적에 들었던 자장가요. 그 노래를 다시 들으면 엄마가 잠이 잘 올 것 같대요.”
“그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 있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는 외동이에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노래가 생각나지 않는대요.”
“곤란해!”
“왜 곤란한 거죠? 소리 마녀라면서요. 그럼 무슨 소리든 다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 소리가 세상에 존재할 때 이야기지.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

1. (가)에서 리나가 흰 머리를 가졌다고 해서 할머니라고 생각한 것처럼 상대의 외모만 보고 오해한 적 있나요?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면 써 보세요.

2. 마녀의 피리 소리가 친구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리나에게만 들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마녀는 엄마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를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말도 안 돼!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저녁에 엄마와 공원을 걷는 동안, 리나는 마녀가 했던 말을 계속 곱씹었다.

'기억을 못 한다고 그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 그러니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서 찾으면 되는 거지.'

리나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머릿속에 남아 있기도 하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가 물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적에 들었던 자장가처럼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머릿속에 남아 있느냐고."

잠시 생각한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의식에 남아 있겠지. 까맣게 잊은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것이 무의식에 숨어 있다고 하잖아."

"무의식? 그게 뭔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들 아래에 꼭꼭 숨어 있는 게 무의식이야."

(나) '그 할머니는 그냥 마녀가 되고 싶은 사람일 거야. 진짜 마녀가 있을 리 없잖아. 게다가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자니.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해!'

"엄마도 어릴 적에 들었던 그 자장가를 꼭 다시 듣고 싶어."

혼잣말하듯 엄마가 속삭였다.

휘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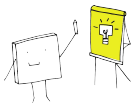
공원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가 리나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왔다.

'엄마를 위해 자장가를 찾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 (가)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살려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2. 엄마가 어릴 적 들었던 자장가처럼 머릿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기억 중에 반드시 찾고 싶은 기억이 있나요?

3. 리나가 엄마를 위해 자장가를 찾아주고 싶은 것처럼 나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찾아주고 싶은 것이 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⑥ 꿈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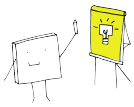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리나, 널 기다리고 있었지. 내 생각은 틀린 적이 없다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며 리나가 물었다.
“네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거든. 엄마를 아주 많이 사랑하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섭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아이 같더구나. 어때? 내 말이 맞지?”
(나) “이 고양이가 멜로디예요?”
“그래, 우릴 꿈속으로 데려다줄 아이란다.”
……
“그나저나 오늘 밤 네 엄마가 아주 잠깐 잠드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순간에 이 피리를 부는 거야. 그럼 우리 셋이 네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때? 할 수 있겠어?”
(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피리를 불어야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번엔 얼굴이 벌게지도록 입에 힘을 주어 불었다.
훅! 얼굴에 열기만 오를 뿐 피리 소리는 나지 않았다. 당황한 리나는 눈물이 찔끔 날 것만 같았다.
‘제발, 제발, 우리 엄마 꿈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자장가를 찾게 도와주세요. 제발요.’
(라) “자! 얼른 가자꾸나. 너희 엄마가 잠에서 깨기 전에 자장가를 찾아야 하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이곳은 칠흑처럼 어둡고 쓸쓸해 보이는구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을 발견하면 그곳에 자장가가 있을 거야. 리나, 네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서렴.”

1. 마녀는 리나가 다시 마녀를 찾아올 거란 걸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리나가 엄마의 꿈속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3. 마녀는 칠흑처럼 어둡고 쓸쓸한 엄마의 꿈속에서 자장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⑦ 징글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걱정 마! 이제 막 기쁨의 터널을 지났으니, 빛의 터널이 곧 나올 거야. 그나저나 자장가를 찾으면 너희 엄마가 참 좋아하시겠구나.”
마녀가 생긋 웃으며 말했다.
“네,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우리 엄마 소원이거든요. 자장가를 찾으면 그 소원이 이뤄질지도 몰라요.”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근데 마녀님 소원은 뭐예요?”
“내 소원은 말이야. 모든 사람이 소중한 소리 하나씩을 간직하는 거야. 아주 힘든 순간에도 그 소리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불끈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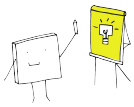
(나) “엄마! 아빠가 만든 자장가 듣고 싶어.”
“그래, 아빠가 이 노래 만들면서 참 많이 울었었는데. 네가 짠하고 안쓰럽다고 말이야.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우리 진영이 웃음소리! 엄마 시름, 아빠 땀 모두 가져갔다네. 우리 진영이 작은 입에 맛난 간식 넣어 주면 엄마 주름, 아빠 한숨 모두 떠나가겠네.’”
외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장가를 반복해서 부르는 동안, 엄마는 스르르 잠이 들었다. 외할머니가 거칠고 뭉툭한 손으로 엄마의 뺨을 어루만지자, 자장가 가사들이 빛을 내며 하나둘 공중으로 떠올랐다.

1. 리나와 마녀의 소원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리나의 소원	마녀의 소원

2.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행복해지는 소중한 소리가 있나요?

3. 글 (나)에서 외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불러줄 자장가를 만들며 왜 울었을까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⑧ 자장가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리나는 조금 전 생생한 기억을 곱씹다 어린 시절 엄마 얼굴을 떠올렸다. 찹쌀떡을 먹고 싶어 오물거리던 입, 크리스마스트리 아래 선물 상자들을 들여다보던 눈, 선물을 받아 들고 깡충깡충 뛰어오르던 다리, 외할머니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던 얼굴까지.

목구멍이 메워진 리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엄마도 옛날에 나처럼 작은 아이였구나.'

그 생각에 이른 리나는 엄마가 측은해 보여 엄마 곁에 살포시 누웠다.

(나) "걱정 마! 이제 내가 용돈 모아서 찹쌀떡 사줄게. 징글벨 노래도 불러주고, 크리스마스에 선물도 사줄게.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밤 엄마가 잠들 때까지 외할머니 대신 자장가도 불러줄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눈물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으며 엄마가 리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러자 리나가 엄마 등을 톡톡 두드리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엄마는 외할머니 품에 안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스르르 잠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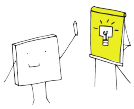
(다) 다음 날, 하교 후 공원으로 달려간 리나는 마녀와 멜로디를 찾느라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텅 빈 공원에 휭휭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마녀가 앉았던 벤치에 덩그러니 남겨진 쪽지 하나가 리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 리나야! 엄마의 자장가처럼 너에게도 소중한 소리가 있지? 그 소리를 잘 간직하렴! 힘들 때마다 그 소리를 떠올리면 절로 힘이 날 거야. 아 참!
> 소리 마녀가 엉엉 울었다는 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왜냐면 그건 아주아주 무섭고, 위험한 일이니까!

1. 꿈속에서 만난 엄마의 어린 시절 모습은 어땠나요? 어린 엄마를 본 리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2. 글 (나)에서 엄마는 리나의 말을 듣고 눈물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습니다. 리나의 말을 들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 소리 마녀가 리나에게 남긴 쪽지에 대한 답장을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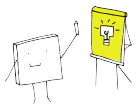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①상상하여 그리기

※《소리마녀》에서 마녀의 모습이 묘사된 부분을 상상하여 그려 봅시다.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여 까만 모자 아래를 들여다본 리나는 숨을 흡, 들이마셨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창백한 할머니가 팔꿈치까지 오는 장갑을 끼고, 복숭아뼈까지 늘어뜨린 까만 치마를 입고, 까만 피리를 불고 있었다.

……

까만 모자 아래 늘어뜨린 백발이 바람에 날려 포르르 춤을 추었고, 주글주글한 눈꺼풀 아래 있던 날카로운 눈빛이 리나에게 날아왔다.



정답과 해설(예시답안)

2쪽	1. (예시답안) 피리를 불어 주는 마녀의 모습과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녀의 피리 소리는 아주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 (예시답안) 엄마가 꾸었던 꿈 중에서 제일 무서운 꿈으로 가서 엄마랑 함께 있고 싶다. 엄마가 무섭지 않게 안아 주고 싶다. 3. (예시답안) 아무리 엄청난 무서운 일이라고 해도 엄마를 위해서 용기를 낼 것 같다. 엄마가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용기를 내어 도전해볼 것 같다.
3쪽	1. (예시답안) 운동하고 반신욕하고 아로마 향초를 켜는 모든 일은 엄마가 잠들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서인데 그럼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외할머니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듣고 있으면 마치 자장가가 수면제인 것처럼 금방 잠들 수 있었다. 3. (예시답안)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쪽	1. (예시답안) 밥이 다 지어지면 전기밥솥에서 폭폭폭 하는 작은 기차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포근하고 따스한 기분이 든다. 폭폭폭 소리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맛있는 밥 냄새도 함께 기억이 난다. 2. (예시답안)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을 때 들었던 소리를 다시 들으면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라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 3. (예시답안) 외할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다시 들려주기만 하면 엄마의 불면증이 틀림없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5쪽	1. (예시답안) 바람에 억새들이 몸을 부딪치며 내는 사르락 사르락 소리를 듣는 게 좋았다. 2. (예시답안) 맑고 청아하며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피리 소리 3. (예시답안) 다정이, 수향이, 형우 모두 피리 소리가 안 들린다고 했는데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까만 모자를 쓴 누군가가 피리를 불고 있었고, 자신이 들은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6쪽	1. (예시답안) 머리카락이 아주 짧고 키가 커서 남자라고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렀는데 오빠가 아니고 언니라고 말해 주어서 깜짝 놀라고 당황했다. 2. (예시답안) 마녀의 피리 소리는 간절히 원하는 소리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기 때문이다. 3. (예시답안)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table>
<tr><td>7쪽</td><td>1. (예시답안) 나는 그날 밤 속초 바닷가에서의 추억을 내내 곱씹었다.
곱씹었다 : 말이나 생각 따위를 곰곰이 되풀이하다.
2. (예시답안) 엄마 배 속에서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때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그 기억이 숨어 있다면 꼭 찾고 싶다. 아기인 내가 바라본 첫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다.
3. (예시답안) 여행지에서 잃어버린 언니의 원숭이 인형을 찾아주고 싶다. 너무 좋아해서 여행 갈 때도 항상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려 언니가 많이 슬퍼했기 때문이다.</td></tr>
<tr><td>8쪽</td><td>1. (예시답안) 리나의 눈에 비친 간절함이 보였고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섭고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마녀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2. (예시답안) 엄마가 잠깐이라도 잠이 들 때 피리를 불어 소리가 나야 한다고 했다.
3. (예시답안) 엄마가 잠에서 깨기 전에 어둡고 쓸쓸한 곳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 자장가가 있기 때문이다.</td></tr>
<tr><td>9쪽</td><td>1.
<table><tr><th>리나의 소원</th><th>마녀의 소원</th></tr><tr><td>(예시답안)
엄마가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것</td><td>(예시답안)
모든 사람이 소중한 소리를 하나씩 간직하는 것</td></tr></table>2. (예시답안) 잠자기 전 아빠가 잘 자라고 해주는 따스한 인사
3. (예시답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좋아하는 간식도 넉넉히 사주지 못해 미안하고 그럼에도 밝게 자라주는 딸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어서.</td></tr>
<tr><td>10쪽</td><td>1. (예시답안) 찹쌀떡을 먹고 싶어 입술을 오물거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아래의 선물들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선물을 받고는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다. 또한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자장가를 들으며 편안히 잠들었다. 리나는 엄마도 나처럼 어린아이였구나, 하는 생각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2. (예시답안)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던 일들을 아직 어린 나의 딸이 해주겠다고 하니 기특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 돌아가신 엄마를 대신해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자장가를 불러주겠다는 리나의 말에 감동 받았을 것 같다.
3. (예시답안) 마녀님, 우리 엄마의 꿈속에 함께 가서 자장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잠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의 소중한 소리도 잊지 않고 잘 간직할게요! 참, 비밀은 꼭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녀님도 어디서든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td></tr>
<tr><td>11쪽</td><td>(답안 생략)</td></tr>
</table>